

드론 위협 맞서 ‘국가 심장부 수도 사수’ 머리 맞대

육군수방사·서울시, 안보포럼 개최
대드론체계 구축 다양한 시각 제시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만들 것”

육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서울시가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 서울형 대드론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수방사와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미 시작된 드론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이우현(소장) 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수방사와 서울시가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론이 주요 전투 판도를 바꾸는 핵심 무기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열린 포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



육군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시가 17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안보포럼 시작 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았다.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지속적인 드론 공격에 노출되며 전력·통신 등의 국가기반 시설이 마비된 사례는 인구와 국가주요시설이 밀집한 서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럼에선 윤철남(준장) 육군1방공여단장이 ‘서울시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과 질

의응답에서는 참석자들이 적용 가능한 대드론체계 구축안을 놓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수방사와 서울시는 이번 포럼이 유사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다지는 기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모델

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서울은 국가 심장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드론 위협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군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막강 화력’ 뽐내며 ‘통합전투’ 역량 빛냈다

육군5보병사단 표범여단 철권대대
전 병과 참가·대대 편제화기 총동원
거점방어전투사격훈련 성공적 마무리

총성과 굉음이 가을 하늘을 갈랐다. 이어 적 전차와 보병의 이동을 식별했다는 무전이 참호 곳곳에 울리자 대대장은 지체 없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

육군5보병사단 표범여단 철권대대는 17일 “최근 경기 연천군 다락대 훈련장에서 사단·예하부대 교육훈련 담당자 참관하에 ‘거점방어전투사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훈련은 공격 준비사격, 드론 운용, 특작부대 침투 등 실제 적의 침투·공격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통합전투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훈련은 최신 전투 수행개념을 적용해 장병들의 행동 숙달과 국면별 방어절차 숙지, 중대급 이하 지휘관의 전투지휘 능력 제고, 사격통제를 통한 통합화력 발휘를 목표로 진행됐다.



육군5보병사단 K55A1 자주포들이 경기 연천군 다락대 훈련장에서 실시된 거점방어전투사격훈련 중 가상의 적 도발 원점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부대 제공

이를 위해 대대는 지난 7월부터 화기별 진지 재구축, 장애물 설치, 공용화기 사격,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방호훈련을 반복하며 훈련모델을 정립했다.

훈련은 무인항공기(UAV)·드론 연계 포

탄 폭발로 적의 공격 준비사격이 개시되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지상정찰반의 식별 보고가 접수되자 여단·대대 지휘소로 적의 종류·규모·이동로가 전파됐다. 중대장이 사격을 명령하자 포병·전차·소총 등 통합화력

이 집중돼 적을 무력화했다.

적이 격멸된 뒤에는 적 헬기·전차의 후속 공격과 함께 특작부대의 지휘소 기습상황이 연출됐다. 대대는 사격 집중지역 전투와 최후방어사격을 전개해 포병·전차·항공·대전차무기·대응방공체계 등 가용 전력을 총동원, 적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진지 보강 및 재편성까지 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보병·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전 병과가 참가해 제병 협동 전투력을 크게 향상했다. 포병은 K55A1 자주포 6문으로 100발의 고폭탄을 신속·정확히 발사했다. 또 K201 유탄발사기, 대전차 유도무기 현공,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대대 편제화기가 모두 투입됐다.

김남우(중령) 진격대대장은 “이번 거점방어전투사격훈련은 통합작전요소 운용 능력과 방어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계속해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전투력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AI 과학기술 강군 시대 대비…기갑·기계화부대 전력 극대화 방안 모색

육군기계화학교, 전투발전 세미나
과학화 훈련체계 확보 필요성
실질적 전투력 개선 열띤 토의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첨단 기동전력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육군기계화학교는 17일 육군7기동군단 사령부에서 ‘2025년 기갑 및 기계화부대 전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 현존 전력 극대화 발전방안’을 주

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주요 부대와 학교기관 지휘관, 육군과학기술위원회 첨단 기동·신소재 과학기술그룹 민간 전문·자문위원,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군·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계화학교는 ‘아미타이거 기계화보병중대 전투실험을 통해 본 미래 전투발전 소요’를,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한국군 전략기동부대 및 육군 전방군단 기갑전력 향상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우리 군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실질적인 전투력 개선과 전력 증강안

을 놓고 열띤 토의를 벌였다.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기갑 및 기계화부대 전술모의훈련체계 발전방안’ ‘전자전 기술 기반 전차·장갑차 탑재 지능형 드론 재머 개발방안’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대전차 유도무기와 소형 정찰 및 자폭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K계열’ 전차와 보병전투차량에 지능형 다층방호체계를 탑재하는 성능개량사업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고성능 시뮬레이

터 중심 ‘기갑 및 기계화 대대급 과학화 모의훈련센터’ 등 병과 특성에 맞는 과학화 훈련체계 확보 필요성과 구축방안에 관한 의견도 공유했다.

문기수(준장) 기계화학교장은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기동전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현존 전력 개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야전과 연계한 전력소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